“영화계도 당했다”…충무로에도 ‘미투’

이현주 감독 사건 계기로 피해 고발 봇물
지난해 김기덕 감독 고소 여배우도 동참


동성 영화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현주 감독. 사진제공 | KAPA

영화계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더는 감추지 않겠다는 연대의 시작이다. 영화 관련 단체들도 피해방지를 위한 논의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현재 영화계를 달구는 여성 영화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은 미투 움직임을 확대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독립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은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 동료인 영화감독 A씨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은 이달 초 A씨가 SNS에 “미투에 동참한다”는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미투’ 운동은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톱스타들이 촉발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이다. 이에 용기를 얻은 서지현 검사가 최근 성추행 피해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서 본격 시작됐고, 그 분위기가 영화계로도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자 이현주 감독은 6일 스스로 실명을 밝힌 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지지하는 ‘#With you’ 운동까지 시작됐다. ‘연애담’ 배급사 인디플러그 역시 7일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공유한다”고 사과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이현주 감독을 제명했다.

영화 관련 단체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두 감독의 모교인 한국영화아카데미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촉발하는 ‘사건무마’ 시도가 학교 내 일부 교수를 통해 벌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B씨도 최근 ‘미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B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배우 신체 일부를 만지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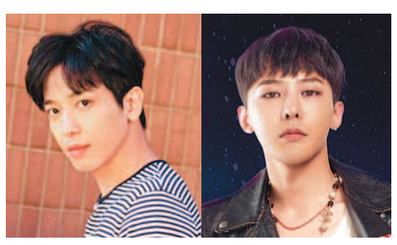
정작 ‘현장’의 심각성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진위와 여성영화인모임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영화배우 및 스태프 7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화인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 실태조사’에서 여성 11.5%(남성 2.6%)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9.0%(남성 9.7%)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의 성별은 여성(7.9%)보다 남성(91.7%)이 압도적으로 높다.

대책 마련을 위한 영화계의 움직임도 빠르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임순례 영화감독, 영화사 명필름 심재명 대표 등이 주축이 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 곧 출범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아이돌 석사’ 병역 연기 꼼수냐 관행이냐

정용화·지드래곤 등 대학원 진학 논란
편법 지적 vs 관행 용인…엇갈린 시선


정용화

지드래곤

아이돌 가수의 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논쟁이 화두에 올랐다.

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들이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꼼수’와 ‘관행’이라는 시선이 엇갈린다.

앞서 씨엔블루의 정용화(29)는 면접을 치르지 않고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해 병역을 연기했다는 의심을 산데 이어 빅뱅의 지드래곤(30)도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군 입대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2AM의 조권(29)도 지난해 경희대 대학원 실용음악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논문대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허술한 공연을 했다고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권 역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연예계에서는 비단 아이돌 가수뿐만 아니라 남자 연예인들이 입대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박사과정 대상자 포함) 예정자는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또 드라마 촬영이나 해외 공연, 국가 기관의 홍보대사 자격 등으로 3개월 정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끝나면 그 해나 그 다음해 병역검사를 받으면 된다. 연예계에선 이 조항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의 경우 오로지 입대를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인다거나, 사법고시 응시와 같은 설득력 없는 방법으로 입대를 미루면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7일 “(군 미필자)연예인은 활동 시기가 정해져 있다보니 대학원 진학 등으로 최대한 활동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병역 연기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절차상의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신과함께’ 1400만 돌파…‘국제시장’ 추월 초읽기

〈역대 흥행 2위〉


개봉 50여일 만에 역대 흥행 2위 자리 초읽기에 들어간 영화 ‘신과함께’. 사진제공 | 리얼라이즈픽쳐스

‘신과함께:죄와 벌’이 역대 흥행 2위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봉 50여일 만에 거둔 다양한 성과로 눈길을 모은다.

지난해 12월20일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 벌’(신과함께)은 이르면 10일께 역대 흥행 2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2위는 2014년 1426만 2498명을 불러 모은 ‘국제시장’. ‘신과함께’는 이보다 3만여명 모자란 1423만2000여명을 6일 현재 동원하고 있다. 평일 평균 1만7000여명이 관람하고 있어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말 ‘국제시장’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과함께’는 최근 몇 년 사이 영화와 드라마 등의 원천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웹툰 원작 영화로서는 첫 1000만 관객 동원을 넘어 최고 흥행작이 됐다. 저승을 배경으로 한 영화답게 정교한 CG 등 영상 기술력으로 승부를 내건 한국영화로서도 상업적 성공을 크게 거둔 작품으로 꼽힌다.

그 성과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릴 주인공은 연출자 김용화 감독이다. 김 감독은 연출자로서뿐 아니라 각본가와 제작자로서도 이름을 올리며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됐다. 여기에 제작사이면서 이 영화에 시각효과 등 기술력의 힘을 불어넣은 후반작업 업체인 덱스터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어 그에 따른 수익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감독은 ‘신과함께’ 2부 ‘인과 연’을 올해 여름 개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1부 ‘죄와 벌’로서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황이어서 그가 얻을 상업적 성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1인 기획사 설립…장동건의 홀로서기

독자활동 돌입…영화·드라마 종횡무진


장동건

배우 장동건이 연기활동도, 참여하는 작품 안에서의 변신에도 공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반가운 변화다.

장동건은 기획사 이름을 디엔터테인먼트 컴퍼니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자 활동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이름이다. 당장 다른 배우들을 영입해 회사를 확장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장동건은 회사 설립과 맞물려 연기활동에도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작품 선정에 누구보다 신중했고, 다른 배우들과 비교해 출연 횟수가 적었지만 올해부터 다양한 장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악역에 가까운 인물을 맡는 등 그 표현의 범위도 확대했다. 올해 여름까지 일정이 꽉 찼을 만큼 분주하다.

장동건이 올해 처음 내놓는 영화는 3월 말 개봉하는 ‘7년의 밤’. 자신의 딸을 실수로 죽인 남자와 그 아들을 향해 7년 동안 처절한 복수를 벌이는 인물을 맡았다. 지난해 주연한 ‘브이아이피’에 이어 또 한 번 색다른 변신이다.

현재 영화 ‘창궐’의 막바지 촬영에 한창이기도 하다. 좀비가 등장하는 사극으로 주목받는 영화는 장동건이 절친한 후배 현빈과 처음 함께 하는 작품.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해 연기 대결도 벌인다.

변화무쌍한 영화와 달리 장동건은 드라마에선 고유한 매력을 이어간다. 4월 방송될 KBS 2TV ‘슈츠’를 통해 ‘신사의 품격’ 이후 6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현장.jpg

‘잘가라’ 홍진영 컴백 “잘왔다”


“‘사랑의 배터리’는 잠시 잊어주세요!” ‘트로트 퀸’ 홍진영이 한층 젊어진 감각으로 돌아왔다. 7일 서울 서교동 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홍진영은 “트로트는 더 이상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도 친숙한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홍진영이 야심 차게 들고 나온 곡은 ‘잘가라’.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등을 작곡한 조영수 작곡가가 곡을 썼고, 가사는 김이나가 맡았다. 이번에도 중독성 있는 발랄한 곡으로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숫자뉴스

29개국 그룹 세븐틴의 새 앨범 ‘디렉터스 컷’이 해외 아이튠즈 앨범차트에서 1위를 거둔 나라의 수. 앨범은 5일 발매 직후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등 모두 29개국의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해시태그 컷



박나래의 원초적 개그우먼 본능

진정한 개그우먼이다. 잠시라도 남을 웃기지 않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가보다. 박나래가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쓰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힘겹게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은 모습까지 웃음을 자아낸다. 스커트에 검은 양말까지 눈에 띈다. 어디 하나 평범한 것이 없다. 이를 잘 아는 듯 박나래 역시 ‘사연있는 여자’ ‘느낌있는 여자’라고 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박나래 #마성의 여자 #뭘 아는 여자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KBS 2TV ‘황금빛 내 인생’

‘지연 방송’과 ‘결방’ 사이 지상파 올림픽 편성 전략

지상파 3사 방송사는 9일 시작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에 따라 변동될 기존의 정규 편성 프로그램 방영에 대한 대비책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대표팀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질 확률이 높은 ‘골든데이’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컬링 등 인기종목이 대부분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에 몰려있어 정규프로그램의 지연 방송 및 결방이 불가피하다. 3사는 공통적으로 스포츠 중계를 1안, 기존의 프로그램 방영을 2안으로 편성하는 방침을 세웠다.

KBS는 2TV 월화드라마 ‘라디오 로맨스’를 12일 평소보다 40분 늦은 밤 10시40분, ‘황금빛 내 인생’은 10일과 24일 결방하고 17일과 18일은 밤 10시에 방송한다. 특히 ‘황금빛 내 인생’은 45%(닐슨코리아)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높은 인기를 기록하는 만큼 열혈 시청자를 무시할 수 없어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춰서라도 방영한다. 드라마국 관계자는 “세계적인 축제이지만 드라마의 오랜 결방은 이야기의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MBC는 12·13일 ‘하얀거탑’, 14일 ‘라디오스타’, 18일 ‘밥상 차리는 남자’를 결방한다. SBS는 현재 월화드라마는 없는 상태로, 수목드라마 ‘리턴’은 경기 시간이 늘어질 경우 방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사는 “일단 2안으로 그 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를 편성해놓았지만, 경기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 방송되거나 결방하는 등 편성은 유동적”이라며 “한국 팀의 출전 여부에 따라 중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송사 측은 광고주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평일 밤 10시대 광고단가가 가장 높은데, 방송사들은 결방이 예상되는 경우 이 시간대 광고주들에게 방영 사흘 전까지 결방을 사전 고지한다. 그리고 원래대로 광고를 노출 시킬 것인지, 아니면 차후 방영될 드라마에 광고를 붙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유진한·고창일 기자